

제 75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8.3.11)

일본의 방위정책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일본의 국방비는 한국의 약 1.6 배이며, 일본의 육군은 인원과 장비 둘 다 한국의 반 이하이다. 해군은 인원은 동등하지만, 장비는 한국의 3 배 정도이며, 대잠수함전 능력은 일본이 현저히 뛰어나다. 공군은 장비에서 한국의 1/2 정도이다. 한국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방어능력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자위대는 냉전기와 냉전 후에 걸쳐서 역할의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 일본은 대소련 봉쇄 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70년대 이후로 일본의 경제는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지게 되면서, 군사대국으로서의 책임도 수행하게끔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냉전기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3해협 봉쇄 및 시레인(Sealane) 방위였다. 특히, 냉전말기의 자위대의 목적은 미군과 일체화(미군은 창, 자위대는 방패)하여 소련을 봉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미국은 일본이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 서측 세계의 일원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행위는 일본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헌법 9조의 위헌가능성도 존재하였다.

냉전 후, 소련봉쇄의 역할은 사라지고, 세계평화에 기여 및 북한의 위협에 기인한 자국방어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요하기 시작한 미일동맹의 재정적 작업도 수행하였다. 이 결과, 일본은 미국에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고,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확보하였다. 국제사회에의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출생률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위대의 임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한미양국 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하며,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Q&A>

Q. 탈냉전후 미일관계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는 아시아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비용도 많이 들지만, 미국이 있기에 우발상황의 억지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

Q. 일본의 측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구조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PAC-3 을 필요로 한다. SM-3 은 너무 크다. 한국이 이를 도입하여 미일방어구조에 동참한다면 좋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기술적, 지정학적 문제 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Q. 일본에도 주적 개념이 있는가?

A. 주적 개념이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본이 견제하는 국가는 북한이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Q. 미국은 미사일 방위체제를 왜 구축하려 하나?

A.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미사일 방위체제는 불량국가들의 우발적 발사에 대한 것일 뿐, 모든 미사일을 방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할 경우, 우방국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Q.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이 갖는 의미는?

A. 이는 방위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승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향후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승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Agency 라고 불리웠던 방위청 시절보다 Ministry 라고 불리우는 현재가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졌다고 하겠다.